



이광호, Untitled 6929, <국제갤러리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 "숲을 처음 봤을 때 뭔가 상상치 않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날 날씨나 제 심리상태에 따라 달라 보였으니까요."

이광호가 그의 '숲'을 그린 신작을 서울 종로 국제갤러리에서 선보인다.

'그림 풍경'이라는 이름으로 16일부터 열릴 이번 개인전에선 작가가 제주 꽃자왈을 직접 찾아보고 느낀 숲을 만날 수 있다. 꽃자왈은 숲을 뜻하는 '꽃'과 수풀이 우거진 '자왈'을 결합한 제주 고유어다.

'그림 풍경'이라는 이름으로 16일부터 열릴 이번 개인전에선 작가가 제주 꽃자왈을 직접 찾아보고 느낀 숲을 만날 수 있다. 꽃자왈은 숲을 뜻하는 '꽃'과 수풀이 우거진 '자왈'을 결합한 제주 고유어다.

작가는 이곳을 방문했을 때 "원시적이고 사람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 방치된 느낌이었다"고 한다. 많은 사람이 그렇듯 작가도 "숲에서 생명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전에 인물, 선인장 등을 화폭에 담아냈던 작가는 이번에 숲에 눈길을 준 이유에 대해 "숲이 갖고 있는 망막함, 광활한 다양성을 생각하면 화가로서 도전할 수 있는 폭 또한 무한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주로 겨울에 방문한 숲 속에서 나무와 덩불이 서로 투쟁하듯이 공존하고 그 속에 나뭇가지 또한 복잡하게 엉켜 있었다고 한다.

작가는 "제가 그 공간에 있기 때문에 감정이 많이 개입되더라"며 "숲은 시아가 무한해 그 속에 제가 들어가야 했다"고 강조했다.

처음엔 붓으로 묘사하다가 판화작업에 쓰이는 도구 등으로 긁어내는 작업을 하면서 이미 구획돼 있는 부분을 해체했다고 작가는 설명했다.

그는 "부분적으로 헤매듯이, 더듬거리듯이 보게 되니 전체 이미지가 나오더라"면서 "그 과정에서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는 재미도 있었다"고 들려줬다.

전시에선 흰 눈과 녹색이 선명한 나무가 보이는 숲, 새벽녘의 숲 등 작가가 그런 다양한 숲을 보여주는 21점이 소개된다.

사실주의 화가로 꼽히는 이광호는 이화여대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시는 내년 1월 25일까지.

j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